

보도시점

2026. 7. 20.(월) 13:30
< 7.21.(화) 조간 >

배포

2026. 7. 20.(월)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노고직원 격려

- 산업부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총 11건 45명, 9,100만원 포상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여, 중동 정세 불안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에 헌신한 11개 과제, 45명의 직원에게 총 9,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2차 특별성과 포상금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중동전쟁 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수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및 민생 안정 등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대거 수여되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직원들이 보여준 높은 책임감과 선제적인 대응이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높이 고려되었다.

금번 주요 포상 대상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자원산업정책관(김종철 국장 등 24인, 5개 과제, 총 5,700만 원)은 전쟁 발발 직후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였으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신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였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한 대체 공급망 확보와 나프타·요소 등 필수 원자재 수입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생산 차질을 막고 에너지 안보를 사수한 노고를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구주통상과(양정식 과장 등 9인, 1,000만 원)는 이탈리아의 '초감가 상각제도'(EU산 설비에만 세제 혜택 부여)에 대해 통상 당국의 끈질긴 협상과 정상 외교를 통해 'EU산' 요건을 폐지, 한국산 기계·설비 구매 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우리 기업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수출입과 (김애경 서기관 등 4인, 1,000만 원)는 조선산업 공급망 보증을 포함하여 총 16조 원 규모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생 무역금융을 제공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었다.

김정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국익을 수호해 온 실무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에너지·자원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등 위기 상황이 완전히 종료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 경제 안정과 국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철영	044-203-5530
		담당자	주무관	임종민	044-203-5535



□ 수여 대상 : 총 11건(단체 8건, 개인 3건), 45인, 9,100만원

구분	성과명	대상	팀 구성현황			금액
	선정 사유		과장 이상	45급 및 5급	6급 이하	
단체	석유도입·생산·유통·판매 등 전분야 밀착 관리로 석유수급 안정화 기여 ▶ 원유 도입 다변화 제도 개편, 국제공동비축 사업, 대체항로 안전통항 지원 등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기여 ▶ 휘·등·경·용제·윤활유·항공유·아스팔트 등 석유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관계부처 현장 합동 점검 등으로 국내 석유 유통질서 확립	석유산업과	1	5	3	2,000만원
	석유 최고가격제 설계 운영 등을 통한 석유 가격 안정화 ▶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설계, 운영하여 민생안정 기여 ▶ '착한주유소' 확대, 일일 가격 모니터링, 석유시장 감시,감독 등 통해 일선 주유소 현장 가격 안정화	최고가격제팀	1	4		1,500만원
	나프타, 요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경사업 신속추진 ▶ 산업부 추경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추경예산(6,783억원)을 확보하여 공급망 핵심품목인 나프타 및 요소 수급차질 방지 ▶ 추경예산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예산안 통과 후 1주일만에 세부 사업내용을 확정·공고	산업공급망 안정화 대응팀	2	3	1	1,000만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신설하여 일시적 원유 수급 불안정 방지 및 공장 가동률 유지에 기여 ▶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도입 차질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을 원활하게 생산하는데 기여 ▶ 또한, 동 방식의 비축유 활용을 통해 비축유 방출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	비축유 SWAP팀	1	1	2	1,000만원
	이탈리아 초감가상각제도 EU産 지역제한 철폐 ▶ EU산 외에 한국산 기계·설비 구매시에도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 ▶ 우리 수출기업의 이탈리아 시장 내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및 통상이익 보호	구주통상과	1	7	1	1,000만원

	모두의 수출을 위한 상생 무역금융 확산 ▶ 대기업과 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기반하여 중소협력사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생 무역금융 프로그램 마련 ▶ 자동차, 철강, 조선, 소비재 등 주력 수출산업 및 유망 수출품목으로 확산	수출입과		1	3	1,000만원
	혁신기업과 산업생태계 성장 투자를 위한 민간 중심 "산업성장펀드" 출범 ▶ 역대 최대 규모 앵커출자(은행 약 1.1조원) 기반으로 기술혁신 기업과 산업생태계에 투자하는 "산업성장펀드" 출범 ('26.5월) ▶ MAX 산업대전환 혁신펀드, 5극3특 지역산업 혁신펀드를 시작으로 연내 본격 투자개시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산업기술시장과	1	1	1	500만원
	신속심의 및 현장실사 등 적극행정으로 국가첨단 전략기술이 포함된 해외 합작법인 효율화 지원 ▶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인의 매각은 정부의 승인 必 → 신속철저한 검토 및 현장실사(미국)로 기술유출 방지 ▶ 정부의 신속한 적극행정 → 기업의 부채(5.4조원) 및 년고정비(6천억원) 감소와 국내 투자(4천억원) 견인	배터리 전기전자과	1	1		500만원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 앵커기업 협의를 통해 앵커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 기획 ▶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사항 발굴 등 패키지 지원안 마련	조문규 사무관		1		200만원
개 인	LNG 도입선 다변화 및 수급 유연성 제고 ▶ 한-미 정상회담('25.8월) 계기 가격경쟁력 있는 미국산 LNG 구매계약(330만톤/年) 체결 → LNG 도입선 다변화 및 가스요금 인하 기여 ▶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26.3월) 계기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 → 비상시 상호 협력 기반 마련 및 수급 유연성 제고	윤철희 사무관		1		200만원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 한전,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수출 체계를 국내 원전 역량을 결집한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발표('26.5월) ▶ 정부 주도 상대국 교섭,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 신설, 수출단계별 공기업 역할 명확화(사업개발·주계약·양사 공동, 건설·한수원, 투자·한전) 등 '국가 총력전'인 원전수출의 사업 완성도 제고 기반 구축	양재원 사무관		1		200만원
합 계	단체 8팀, 개인 3팀	총 45인	8	26	11	9,100만원